

정동영 “수구부패동맹과 싸울 것”

한나라 ‘공작정치와의 전쟁’ 선포

反李 연대 제안... BBK 수사발표 규탄 이틀째 집회

“신당은 특검법 발의 중단하고 사과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측이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받은 충격을 극복하며 6일 전열을 재정비했다. 신당은 우선 검찰 수사 발표가 개혁 세력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반 이명박 연대’를 통한 정국 돌파를 시도하기로 했다.

위기에 빠진 신당 측에 반가운 소식은 여론조사에서 개혁표의 계속 조짐이 보인다.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후보는 6.9%포인트 상승한 18.5%를 차지해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현 국면을 ‘이명박 대 반 이명박’ 구도로 그려나가면서 자신을 반 이명박 전선의 선봉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태세다. 정 후보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거대한 음모가 시작됐다. 수구부패동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거짓된 세상을 막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 정치자, 함께 행동하자”며 사실상 반 이명박 연대를 제안했다.

정 후보의 음모론과 관련, 김현미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 뒤에는 삼성특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 특검과 BBK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검찰로 하여금 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김근태 선대위원장, 김효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6일 서울 명동에서 BBK수사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같이 100% 무혐의 결정을 한 배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은 반 이명박 연대의 흐름 속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 범여권 내부의 후보 단일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또 이날 저녁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발표의 문제점과 이명박 후보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동시에 “좋은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데 주

력했다.

한편, 신당은 이날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면 무혐의’ 발표를 성토하는 하는 등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신당은 이날 낮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검찰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6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범여권의 BBK 흑색선전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자 ‘공작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반격에 나섰다.

강제집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정파탄 세력들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선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면서 “공작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염치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

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악한 공작정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신당의 공개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흑색선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신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략적 BBK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고 검찰 규탄집회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공작정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연대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당 클린정치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이념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남을 함담하고 모함하는 데만 같이 모인다는 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면서 “특히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신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당이 대반격에 나서는 것과는 달리 이명박 후보는 이날부터 민생·정책 행보를 재개했다. 경쟁 후보들이 ‘네거티브’에 집착하는 동안 자신은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공식 유세를 벌이는 동안 틈이 재래시장과 기업체, 각종 민생 관련 단체, 복지시설 등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아침 일찍 명동 중앙우체국을 찾아 작업복 차림으로 우편물 집장과 분류장을 돌아보며 연발 우편물 급증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昌, BBK공세 ‘거리두기’

오늘 호남 방문 유세 재개

신당과 연대가능성 배제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6일에도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캠프 전체적으로는 BBK 문제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나치게 BBK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회창 후보가 ‘BBK 한방’만을 노리고 막판에 대선에 뛰어들 게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석준 캠프 정무보수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의혹이 많아 검찰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왜 김영준씨가 진술을 번복했느냐에 대한 동기가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유 특보는 BBK 문제와 관련해 신

당과 연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냐가 논의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 인터넷 매체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가 지난 2일 긴급 회동해 BBK 문제를 조율했다고 보도했던 것과 관련해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역풍을 불러오는 사건이다. 굉장히 (갈게)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후보나 캠프는 BBK 문제와 거리를 두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됐다. 한 핵심관계자는 “이회창 후보는 애초부터 BBK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 후보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의혹 등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날까지 잠정 중단했던 유세도 7일부터 호남지역을 방문하며 재개하기로 했다. 전

날 ‘창사랑’과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참여한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앞으로는 캠프 차원에서 공식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7~8일 광주·전남을 방문,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여수시청을 방문, 2012 여수엑스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여수시청에서 유세를 벌인 뒤 전주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전주 유세를 마친 뒤 8일 오후 다시 광주로 발길을 옮겨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한 뒤 광주·전남선대위를 방문,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전남지상사를 찾아 상인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뒤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떡국 배식 봉사에 나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법사위 ‘BBK특검’ 공방

신당 “특검 통해 진상규명”

한나라 “정치 공세... 거부”

검찰이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옮겨왔다.

국회 법사위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7명의 요구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BBK 수사결과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정당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라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수사팀과 김경준씨까지 불러 BBK 수사자들을 격려했다. 또 전남지상사를 찾아 상인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뒤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떡국 배식 봉사에 나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당의 법사위 소집이 BBK 공방을 계속 끌고 가려

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정치공작 행위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안보고는 물론 법안 상정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신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60%의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검찰이 허위로 자백을 강요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특검에 의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수사 범위를 BBK에 국한할 게 아니라 위장전입, 위장취업 등 모든 의혹을 망라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BBK 공방을 계속 갖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현안보고나 특검법 상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검찰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검법을 낸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아바위꾼이나 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신당-한나라 광주 성명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광주·전남 선대위는 6일 거리 유세와 성명 등을 통해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선대위는 이날 “광주에 일어나라”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광주시민과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해 부패정치세력이 집권하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광주선대위는 “검찰의 수사 발표로 이명박 후보와 BBK 사건은 무관함이 입증됐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끝내고 정책 경쟁을 통한 정치세력교체를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한 영, 이만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 새만금지역에 벌써부터 외국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 공약들을 재점검하고 전파하

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부인 강지연씨는 이날 광주를 방문, 무상의료·무상교육, 빈곤 사각지대 해소 등 권 후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는 나라-생애주기’에 맞는 공공서비스 정책” 전파에 주력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신중식 전남 선대위원장과 최형식 상임부위원장, 김창남 상임부부장 등 전남선대위 주요 당직자 및 전남도의원들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 발표를 규탄하고 전남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전남선대위는 또 ▲고흥만 간척지에 우주과학파크 조성 ▲여수엑스포 인프라 확충 ▲서남권 경제·자유무역특구 개발 등 지역공약을 제시하며 서민·중산층·농어민을 위한 차별 없는 성장과 따뜻한 가족행복시대를 열어가길 것을 다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그리고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수료 / 집 / 대 / 상수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수료 / 집 / 대 / 상수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 마술의 종류와 마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술을 통해 어떤 마술이든 할 수 있고, 마술사는 어떤 마술사일까?

연락처: (062)434-7857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

한식전문점 들안채

들·생·입·전·문·정 / 들·안·채 / 들·안·채 / 들·안·채

11월 24일 OPEN

그동안은 편성으로 말하며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힘입어 한식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성을 더하여 모시겠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동로 52-3 (남동동) 들안채

문의: 062)234-8118-9